

		<b>보 도 자 료</b>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2년 6월 23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담 당 자	• 농촌개발팀장 전 병 호 ☎440-4381 • 담당자 김 은 경 ☎440-438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가뭄피해 최소화 위해 강화·옹진 등에 가뭄대책비 지원

- 강화, 옹진 등 가뭄심한 도서지역 위주로 지원 ... 총 3억3천만 원 -
- 관정개발, 농배수로 준설 등 시설개선으로 향후 가뭄피해 예방에 활용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논·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남동구에 총 3억3천만 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내기 등이 집중되는 올해 5월의 인천지역 누적 강우량은 5.4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강우량 191.5mm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대책비 1억8천만 원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 등 총 3억3천만 원을 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 등에 긴급 지원\*해 가뭄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강화군 1억5천만 원, 옹진군 1억7천만 원, 남동구 1천만원 원

이번 사업비는 관정 개발, 농배수로 준설 등 시설개설 및 확보에 사

용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뭄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강화군은 삼산, 송해, 교동지구 등에 관정 개발을, 옹진군은 백령지구 농배수로 준설과 덕적, 자월, 영흥지구 관정 개발을, 남동구의 경우에는 급수차 지원 등을 통해 가뭄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강화군에서는 양사지구에 용배수로 준설(농수로 사석쌓기 L=250m, H=4m) 1개소, 옹진군에서는 북도지구에 관정 개발(1공), 농배수로 준설(1개소), 백령지구에 관정 정비, 용수관로 설치, 덕적지구에 관정 개발(2공), 영흥지구에 관정 개발(1공) 등 가뭄대책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논·밭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붙임1 : 강화군 가뭄현장 방문]

- 2022.6.7.(화) 09:30 ~ 17:00
- 농업용수 공급실태 및 가뭄상황 확인
-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외 2명), 강화군(농정과장 외 2명),  
농어촌공사 강화지사(급수부장 외 3명)



봉소리 일원 수로 현장



교동면 일원 고구저수지